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5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상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5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상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 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⑦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 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⑧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갈 2:20)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동일하게 재연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성령충만한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이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2008년 5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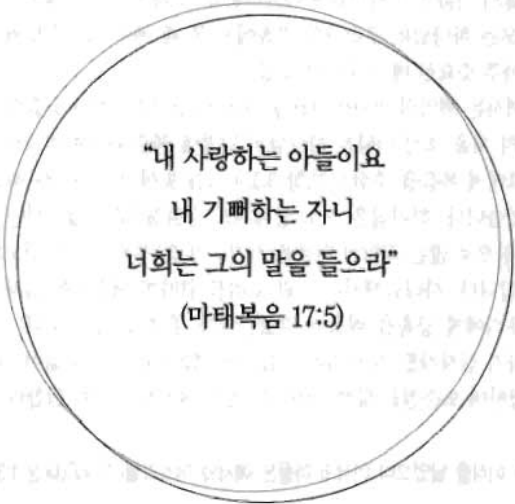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매일 성경묵상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5)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구원역사의 요약에 초점을 맞춘 역대상은 아담에서 노아까지(1~4절), 노아의 가계(5~23절), 셈에서 아브라함(24~27절), 아브라함의 가계(28~34절), 에서에서 나온 에돔 족속의 계보(35~42절), 에돔 왕의 족장(43~54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역사와 평행을 이루면서 민족과 종교의 순결을 수호하는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로 귀환민들에게 선민으로서의 자기 주체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어 아브라함과 그 지손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이 계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공훈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처음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주셨으며(창 3:15) 그를 통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공훈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공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을 입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대상 1:34)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늘 공훈을 베풀어 주소서. ② 교회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야곱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여줍니다. 1~2절에서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곧이어 야곱의 아들 유다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3~17절) 그리고 18절 이하는 다윗 이외의 유다 자손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 족보가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저자의 관심이 오직 다윗 왕가에 집중되어 메시아적 관점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의 계보 중 맏아들인 르우벤보다 유다가 먼저 나오고,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 이유는 유다의 자손들이 가진 인간적 우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조가 생겨났고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나셨기 때문입니다.(사 11:1)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적인 조건이나 윤리적인 완벽함이나 인간의 자격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며 '베레스'는 다윗 왕가의 직계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됩니다.(창 38:1~30) '베레스'를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까닭에 내 공로, 내 자량이 없습니다. 자격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윗이더라”(대상 2:4)

기도 제목 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다윗가의 계보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1~3절)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5~9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포로기 이전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남왕국 유다 왕들(10~16절), 포로기 이후(17~24절)의 솔로몬의 후손들입니다. 왕들의 계보를 보면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나 살다가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어떤 왕들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으며, 어떤 왕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십니다.(렘 17:10)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며, 신실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대상 3: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을 늘 기억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25개 교구 및 23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유다의 자손들과 시므온의 자손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앞서 진술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족보의 상세한 추가 기록입니다. 유다가 머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를 비롯한 유다의 직계자손이 5대까지 소개되며(1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존귀한 자가 된 야베스(9~10절), 이스라엘의 첫 사사 웃니엘(13절),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믿음의 용사 갈렙(15절), 바로의 딸 비디아와 결혼한 베렛(18절) 등 유다의 자손들이 단편적으로 소개됩니다.(2~23절) 뒤를 이어 시므온 지파의 족보(24~27절), 거주지 및 이동 상황(28~33절), 영토정복 기사(42~43절)가 소개됩니다.

유다가 머느리 다말을 통하여 얻은 베레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마 1:3)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혈통에서 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역설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인간 역사의 그 어떤 흔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빌이라”(대상 4: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성찬식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자연적 혈통상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의 계보와 아들들의 행적이 소개됩니다.(1~10절) 그러나 유다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함으로써 본질적인 장자권은 르우벤도 요셉도 아닌 '유다' 라고 말씀합니다.(1~2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진정한 후사는 '장자'를 통하여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2절)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끌고 나아갈 권세와 능력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갓 지파의 후손들은 남유다의 요담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연합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착 초기, 하나님을 의뢰하여 주변 족속을 물리친 일(18~22절)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길로 들어서면서 가졌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떠나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대상 5:25)

기도 제목 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본문/대상 6장 찬송가/313장

레위 지파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만국 중에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나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장은 아론으로부터 포로기까지의 대제사장 계보로,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지 않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15절) 아론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사닥까지의 대제사장의 계보(1~15절), 레위의 세 아들이 낳은 후손들의 족보(16~30절), 레위 지파 가운데 찬송하는 자로 섬긴 헤만(33절), 아삽(39절), 에단의 족보(31~48절), 아론의 자손들(49~53절) 그리고 레위 지파의 기업(54~8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몫으로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선민의 신앙과 생활지침으로 주어진 각종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하며 제사제도 유지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와 율법업무를 관장했던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 제사장직은 완전한 대속의 직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으로 진정한 속죄를 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대상 6:1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잇사갈(1~5절), **베냐민**(6~12절), **납달리**(13절), **므낏세** 반 지파(14~19절), **에브라임**(20~29절), **아셀**(30~40절) 지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족보와 아울러 통계숫자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 장의 기록 목적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을 재건할 여섯 지파 출신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각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수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재건과 새로운 신정왕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내포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또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스스로의 무장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 특이하게도 단과 스불론 지파의 족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과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땅 최북단에 위치하여 예루살렘 성소와 멀리 떨어진 탓에 이방의 우상숭배에 심각하게 물들었고 이로 인해 선민의 족보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혈통으로는 선민이라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더 이상 선민의 족보 속에 이름을 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며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며 하나님의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한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핫이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핫이요”(대상 7:2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욱 주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시에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베냐민 지파가 7장에 이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삼상 10:17~24)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신정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지대한 공을 세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느 11:4,7) 더욱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고(삿 3:15)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에훗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 새로운 이스라엘 제건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소망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는 바룩 1대에 그쳤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계보는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큰 용사의 가문으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40절)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즉 요나단이 자신을 돌보아 주는 대신 자신이 만일 왕이 된다면 요나단의 집을 보살피 줄 것이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입니다.(삼하 21:7)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까지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때(렘 23:5~6),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자세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넠은 기스를 넣고 기스는 사울을 넣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니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대상 8:33)

기도 제목 ①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사들이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포로생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한 종족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4장에서부터 기록한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1절), 더 나아가 새로운 신정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부흥시킬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면서 예루살렘과 신정왕국의 재건에 지대한 공을 세운 유다 지파(3~6절)와 베냐민 지파(7~9절)를 부각시켜 소개한 것과 제사장(10~13절)과 레위인의 족보(14~34절)를 다시 언급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의 손에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모진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1절)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믿음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진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에게는 말씀에 근거한 성결한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약 3:17) 성결한 삶은 물론 성결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성결한 믿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구 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대상 9:1)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깨닫게 하셔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금요찬양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세상적인 지략에 뛰어났던 사울은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갈래셋과의 전투를 위해 길보아 산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엄청난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은 자살하고 그의 세 아들과 온 집도 함께 죽는, '사울 가문의 몰락'이 현실화되었습니다.(6절) 성경은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가문도 몰락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13절)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었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과 전쟁의 패배가 이스라엘의 몰락으로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신정왕국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범죄와 최후를 보면서 참된 순종을 생각합니다. 참된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빌 2:8) 이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대상 10:13)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②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피택을 받은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청지기들로 훈련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 왕국의 기반을 세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사실(1~3절), 여부스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일(4~9절), 다윗 왕국 수립에 많은 공헌을 한 용사들의 업적과 위용(10~47절)을 소개합니다. 1~9절은 삼하 5:1~10과 병행되는 말씀으로 다윗을 진정한 목자이며, 주권자이신 여호와와의 대리자로 강조합니다.(2절) 포로 귀환민들에게 있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예언은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지칭하신 비유(요 10:11)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갔던 근본적인 원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9절)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기사는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의 폐허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 왕조는 불순종으로 몰락했지만 다윗 왕조의 출범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삼상 16:13)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갈 4:4)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과 능률을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며 진행하십니다. 영원 속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기에 약속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대상 11:2)

기도 제목 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② 성령강림주일 및 가족연합예배를 통하여 총현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울이 죽기 전부터 다윗 왕정의 정통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역대기기자의 의도로서 사울 생전에 다윗에게로 왔던 용사들(1~22절)과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을 부었던 용사들의 명단(23~4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되 자신의 택하신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은혜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4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이 결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진정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참된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기쁨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완전한 기쁨에 도달하게 됩니다.(벧전 1:8)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였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던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모든 것들은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를 붙들 때만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대상 12: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관심을 쏟은 것은 하나님의 궤의 이동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3절) 함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의논하는 다윗의 모습(1~5절), 규례에 맞지 않게 법궤를 운반하는 장면(6~8절), 부주의로 급사한 웃사(9~11절), 하나님의 궤를 오벰에돔의 집으로 옮기는 장면(12~1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의 이동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이스라엘의 관심이 여호와 신앙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신정왕국의 면모를 확립하고자 하나님의 궤를 옮김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안치에 대한 기대감에 들뜬 나머지 궤 이동에 관한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웃사가 죽었으며 다윗과 온 백성은 신앙적 연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을 먼저 내세우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십자가 복음만 외치는 교회를 향하여 많은 비난과 반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달게 받으며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벰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대상 13:14)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루살렘에서 크게 흥왕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언급한 전반부(1~7절)와 즉위 직후 하나님의 인도 하에 블레셋의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을 기술한 중반부(8~12절) 그리고 다시 쳐들어온 블레셋 대군을 기습공격으로 섬멸하는 모습을 기록한 후반부(13~1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다윗 왕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높이시고 그의 나라를 크게 부흥시켜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나라의 번영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자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은 도구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깨달음은 자기중심적이었던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은 나라가 안정되어 번영의 기미가 보이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성도로서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면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이 길을 함께 가기 원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대상 14:17)

기도 제목 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오벰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다윗 왕의 모습(1~15절)과 하나님의 궤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봉사(16~24절)와 궤를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모셔온 후 이스라엘 무리들의 찬양(25~29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중앙에 모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의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온 나라 안에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날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으며, 거룩한 행사에 앞서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고(12절), 하나님의 규례에 따르고자 하였습니다.(13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 이송은 성공적으로 마쳐졌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던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13장) 이 장에서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도의 성공의 비결은 다윗의 성실한 마음과, 그것에 대한 보답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재기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놓쳐버린 과거에 대해 애석해 하거나 원통해 하지 말고 뒤에 짓은 잊어버려야 합니다.(빌 3:13)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며 실패한 베드로를 들어 천하를 뒤집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 원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대상 15:25)

기도 제목 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지속된 다윗 왕의 경건한 삶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 및 노래(7~36절)와 제사에 관련된 레위인들의 직무(37~43절)입니다. 이 장에서 중심되는 말씀은 '기억할지어다' (12~13, 15절)와 '선포하라' (23~24절)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를 늘 회상하며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해서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순간순간 넘어지는 믿음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23~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고 있으며(히 9:12),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우리의 전쟁은 복음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방패가 주님이시며,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을 따라 복음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각 교구와 지역마다 준비하는 단기선교에 동참하여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순종하며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대상 16:23~24)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전건축을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1~4절)고 하시며,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영원토록 세우시리라 언약을 하시며(7~15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느(16~27절)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 사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입니다.(11~12절)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11절)는 솔로몬이라기보다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심”(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전건축 의지가 거절당했음에도(4절) 불구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다윗의 신앙고백입니다.(16~27절) “나는 누구이오며”(16절)의 고백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자만이 외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감격은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언약의 영원성이란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불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영원히 성취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오순절에 허락하신 성령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의 신앙이 영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대상 17:16)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소서. ② 남전도회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 왕국이 확장된 사실을 보여 줍니다. 다윗이 블레셋(1절), 모압(2절), 아람 연합군(3~8절), 에돔(11~13절) 등을 격파함으로 이스라엘은 근동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승리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쟁취해야 하는 승리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방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당했듯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방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대적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세력입니다. 이러한 대적은 믿지 않는 무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의 경영과 인력관리, 교회의 부흥의 원리 등 아름답게 포장된 이론들이 십자가 말씀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6.13절) 이 말씀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발견합니다. 1차 청지기훈련 때의 위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모습의 시련과 박해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말씀만 증거하려고 할 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심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교회 앞에 앞서서 가시며 또한 뒤에서 호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 놓고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대상 18:13)

기도 제목 ① 우리를 위협하는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사 양성부와 찬양대원 양성부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병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의 수염을 깎은 것은 고대세계에 있어서 수치의 상징이며 불기 중간까지 자른 의복 역시 하체를 드러내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4절) 이러한 대접은 다윗과 그의 나라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며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몬은 아람의 용병을 사들이고 병력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다윗을 모욕한 자나 모욕한 자를 돕는 자들이 다윗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욕보인 자들 모두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 왕을 모욕한 암몬의 행동이나, 암몬을 도운 아람 족속의 행동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윗 왕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으며(대상 17:8)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의 신앙으로 뭉쳐있었기 때문입니다.(13절)

암몬 사람들은 다윗에게 밋게 한 줄 알고 아람 용병을 고용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책략을 동원하여 먼저 공격을 가했습니다.(6~9절)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이 공격을 가해 올 때가 많으며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죄로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손짓하며 유혹합니다. 자기부인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천 대의 군사와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대상 19:18)

기도 제목 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므로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다윗이 암몬을 완전히 격파하고 마침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랍바 성을 함락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땅을 확보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십브개와 엘하난 그리고 요나단이 물리친 블레셋 장수들은 엄청난 괴력을 지닌 거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자들은 어떠한 강한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2:26~31에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요압의 탁월한 활약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견고한 성 랍바를 함락시킴으로써 암몬 정벌을 실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영웅적 행동 못지않게 아름다운 행동이 있습니다. 요압은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한 후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왕을 모셔왔던 것입니다. 이미 정복된 것이나 다름없는 암몬 족속을 자기의 이름으로 정복하기 보다는 다윗 왕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요압의 충성은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에게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 된 자들의 마땅한 자세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계십니까? 정말로 외식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대상 20:7)

기도 제목 ① 모든 영광을 오직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만 돌리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던 자가 내쫓겼습니다.(9~10절) 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11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셨습니다.(벧전 1:18~19)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다. 이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은 매우 약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쓸모 없는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으며 생명을 아가워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도 들어가며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시련이 심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 보다 앞서서 가시며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수요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외부의 세속권력을(1~10절), 땅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계 19:20)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뜻합니다.(11~18절)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두 세력은 연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역사 전체를 통한 거짓 종교와 철학으로 포장하여 겉으로는 그리스도처럼 보이나 속에는 사탄의 세력과 속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특히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은 이미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현해 있고 우리 주변에 있으며 십자가를 흐려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요일 4:3)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왜?”, “왜 그러지?”라고 묻게 될 때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이 싸움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 인내와 순종입니다. 이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인내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잡혀가는 사람도 생기며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9절)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는 귀와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종말에 세상은 더 악하여지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 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미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 13:10)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인내하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희생된 성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성도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계시해 보여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고통 중에서도 낙심치 아니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2~3절)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다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받을 상급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받을 최후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6~12절) 짐승의 표를 거절한 신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상속받을 것이며, 이들은 곳간에 들일 알곡 같지만(14~16절) 불신자는 틀 속에 짓이겨지는 포도송이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17~20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13절)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의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11절) 말씀합니다. 우상과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죽음과 함께 세상에서 모든 고생과 수고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만이 답이기에 십자가 앞에서 위로를 받으며 현재 우리에게 임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계 14: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 재앙을 내릴 일곱 천사의 모습이 묘사되고, 그 섭리를 찬양하는 성도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찬양하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을 찬미하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처럼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3절)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4절)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며, 한없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며, 회개의 입술이 열리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의 세계가 열리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한없이 흘러내리는 은혜의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척해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온 몸으로 느끼며, 기쁨으로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가 됩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만국의 왕이요 거룩한 분임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한 충현의 모든 선교훈련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일곱 천사가 가지고 오는 재앙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그것을 쏟음으로써 결정적인 심판의 재앙이 실행됨을 보여 줍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모두 짐승을 경배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1절)가 임하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들 모두 출애굽 직전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한 민족에만 관련된 반면, 이 두 재앙은 그 범위가 세계적이며 영적인 차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저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2,6,9,11절)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15절)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마 24:36) 그러므로 늘 깨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교회가 들려지고, 성도가 들려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 날,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계 16:1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언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탄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믿음에서 파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진정한 세력은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가 아니라 그 뒤에서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최고의 정점에 다다를 때, 사탄의 세력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음녀는 세상에서 거짓된 철학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어두운 죄악이며, 우상숭배이며, 짐승 위에 앉아 세속적인 광휘로 화려합니다.(1~6절) 음녀로 상징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7~18절) 16장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이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됩니다.

음녀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사탄의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음녀는 멀리 있어 우리와 관계 없는 것이거나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요일 2:16)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실체가 얼마나 거대하고 완악한 것인지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어두움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유혹합니다. 매순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며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계 17:14)

기도 제목 ①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예배위원회에 속한 일꾼들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일곱 개의 대접에 담긴 모든 재앙을 다 겪은 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천사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 선언(1~8절), 그에 대해 탄식하는 무리들의 애곡(9~20절), 바벨론의 구체적인 멸망(21~24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악(3,7,19,23~24절)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장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런 승리와 악한 자들의 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탄의 권세와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거대한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멸망은 그들의 불순종과 음행과 사치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 이듯이 죄악의 도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바벨론 성의 심판선포와 함께 그들이 받는 재앙을 함께 받는 일이 없도록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4절)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걸어가신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에 속한 자원봉사부원들의 섬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에 임할 환난이 끝나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감사와 찬양(1~5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6~10절),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전쟁(11~21절)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사 54:5~6)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막 2:19~20) 바울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고후 11:2) 어린 양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6~10절)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며 이어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피 뿌린 옷”(13절)에 묻은 “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의미하거나 대적자와의 싸움에서 대적자들이 흘린 피가 그리스도의 옷에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피 뿌린 옷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가리키고 있으며,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13절)이라 칭하는데 이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요 1:1,14 ; 요일 1:1) 우리의 죄를 위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는 말씀은 갈보리 언덕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 날을 사모하며 자기부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계 19:13)

기도 제목 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게 하소서. ② 천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천년왕국과 흰 보좌에 의한 최후 심판의 말씀인데 사탄의 결박(1~3절), 천년왕국(4~6절), 곡과 마곡의 전쟁(7~10절), 최후 심판과 둘째 사망(11~15절)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천년왕국이 어느 시점에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쟁에 앞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합니다. 천 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눌러 놓으실 것이라는 약속은 사탄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진다는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4~6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할 때, 그들을 향해 전하는 강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상급이 분명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박해의 시대를 살아갔을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흰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생명책'이 있어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 기록되어 있으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확실한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뎌림을 받은 우리에게 영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5)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총천 복지관을 복음으로 더욱 견고케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모습을 담은 이 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과 결전이 종료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성취되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후에(1~8절),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기록합니다.(9~27절) 요한계시록의 긴 이야기 속에서 재앙이 시작되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성도들이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은 도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1절)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환상입니다.(겔 37:27)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영원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하십니다.(4~5절) 또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새로운 사람이 되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거듭남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은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 21:27)

기도 제목 ① 천국을 소망하며 땅의 것을 버리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제림의 긴박성(7,12,20절).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와 새 예루살렘으로의 초대(11~12,15,17~19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제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데 요한이 살았던 당시 로마제국의 가혹한 핍박 아래 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간절한 바램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죄인에 대한 심판, 세상 속에 거하는 성도의 고난과 핍박, 새 예루살렘입니다. 21장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묘사한 것에 반해 이 장은 그 곳에서의 성도들의 새 삶을 묘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며, 에덴 동산적 삶을 회복하는 증표로 생명수 강과 생명 나무를 말씀합니다.(1~5절)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에는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저주 아래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초청하십니다.(17절)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9절)

계시록의 신실성과 완전성(6,16,18~19절)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마치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2천 년 전의 한 예언자의 말씀처럼 흘러버리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종말에 가까운, 그럼으로써 보다 생생한 예언의 성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끝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축원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화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여야 합니다.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왜곡되이 해석하거나,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말씀에 쓰인 그대로 믿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5월 구역교재 초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총을 죄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죄인들은 은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총의 자녀는 은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매순간 기념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대속, 부활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춘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은총의 자녀들이여! 성령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전합시다!

	본 문	제 목	초 점
0502	고전 11:23~26	왜 기념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부활, 재림을 기념하자
0509	행 2:1~4	오순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삶의 초점을 맞추자
0516	행 4:31~35	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의 교회가 되자
0523	행 13:6~12	서기오 바울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하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함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왜 기념해야 하는가?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부활, 재림을 기념하자

| 찬 송 |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고린도전서 11:23~26

²³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성찬식은 신자들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 성찬식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성찬식의 떡은 그리스도의 상하신 몸을,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기시켜 줍니다. 교회마다 성찬식을 행하는 주기가 다른데 매주, 매달, 또는 분기별로, 어떤 곳은 일 년에 한 번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고전 11:23~25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임독서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구속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되새깁니다.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 구속(=속량)의 의미를 정리해 보십시오.

- 救(건질 구/ 구원하다. 돕다.)

- 贖(바칠 속/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죄받다. 바꾸다.)

- 구속이란 _____이다.

엡 1:7

골 1:14

우리는 죄의 노예시장에 팔렸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타락에서 구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 로마서 3:23~25 말씀을 요약한 뒤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속량)하기 위한 대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부활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되새깁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은 부활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 요한복음 2:19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써 보십시오.

요 2:20~2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찬식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고전 15:20~22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_____
_____ 잠자는 자들의 _____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_____

※ 부활이 신자의 삶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되새깁니다. 신자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전 11:26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행 1:10~11 /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_____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요 14:2

요일 3:3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교회예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합니다.

고전 11:27~29

요 6:51

지금까지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여 왔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항상 기대하십니까? 이제 더 지체하지 마시고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부활, 재림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제4차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 부활, 재림을 기념하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2과 오순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삶의 초점을 맞추자

| 찬 송 |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본 문 | 사도행전 2:1~4

^㉑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㉒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㉓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㉔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정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빈 칸을 채워 보십시오.

- 예수님의 말씀 /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 “□□와 □□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 되리라”(행 1:7~8)

- 천사의 메시지 /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는 하늘로 가심을 본 □□ 오시리라”(행 1:11)

- 제자들의 모습 / “□□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릭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사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제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을 같이하여 오로지 □□에 힘쓰더라”(행 1:12~14)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역사상 최초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령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었습니다.

※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눅 24:5~6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마 28:18~20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세례를 기다렸습니다.

행 1:14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헐박과 박해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롬 12:12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행 2:2~4

성령강림은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 일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전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 그러나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게 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엡 2:22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강림의 중요한 목적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행 2:36 /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에 못 박은 이 를 하나님이 와 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38 /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를 받고 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 7:59

행 8:4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심으로 기도하였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을 이끈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행 2:32~33

롬 14:8 / 우리가 살아도 □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의 것이로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복음전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어둠뿐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지금 나의 마음에 임하소서
2.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3과 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의 교회가 되자

| 찬 송 |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본 문 | 사도행전 4:31~35

³¹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³²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³³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³⁴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³⁵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특징 3가지를 써 보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마 16:18

현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의 탈을 쓴 사탄의 속임수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세상의 가치와 섞고 있습니다.

요일 4:3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교회였습니다.(고전 3:16) 그들 각각은 주님의 교회였고, 그들이 모여 초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 4:31

자신들의 의견을 버리며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요 14:13~14 / 너희가 _____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_____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라 _____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초대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행 4:31 /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_____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한 순간 행복해하다가 곧 슬픔과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령충만은 전혀 다릅니다.

고전 6:19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즉 하나님께서 마음 속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고전 1:10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행 4:31 /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성령은 신자들을 감화시키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행 1:8)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학자가 아닌 어부였지만 그들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행 4:13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8:4) 이 힘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서로 통용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성도들 간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 사도행전 4:32~35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오.

성령은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자신보다는 이웃을 바라보게 합니다.(마 19:21 ; 딤후 6:19)

※ 예수님을 향한 나의 드림, 이웃을 향한 나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은혜로 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혜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 4:33

초대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생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고백해 보십시오.

롬 12:3~5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강림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부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행 2:42,47

엡 1:22~23

오순절에 생겨난 초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서로 통용하는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령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믿음을 주소서

4과 서기오 바울의 구원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 본 문 | 사도행전 13:6~12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 말씀(복음)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 그들의 동역자 마가 요한은 성경의 이끌림을 받아 안디옥을 떠나 항만 도시 실루기아로 내려가 구브로 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행 13:4) 이 섬에는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두 개의 큰 도시, 살라미와 바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섬 전체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바예수(예수의 아들)와 서기오 바울이라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 '바예수'와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 위임독서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다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행 13:7

서기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롬 10:13~14 /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갈급함을 채우십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서기오 바울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행 13:8 / 이 마술사 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못하게 힘쓰니

엘루마는 유대인 마술사였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구브로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엘루마를 돌로 쳐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레 20:27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처럼 그들은 영적 지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드시시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다

서기오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행 13:9

바울과 그 일행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엘루마의 실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 13:10~11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마 7:15 ; 요일 2:22)

만약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 강조한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쟁이며 마귀의 자식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행 13:12 /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_____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진실로 복음은 그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길을 잃지 않은 양들보다 그를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8:13

눅 15:10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던 한 사람은 결국 사도들에 의해 징벌을 받았고, 이방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 예수님을 믿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요약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롬 1: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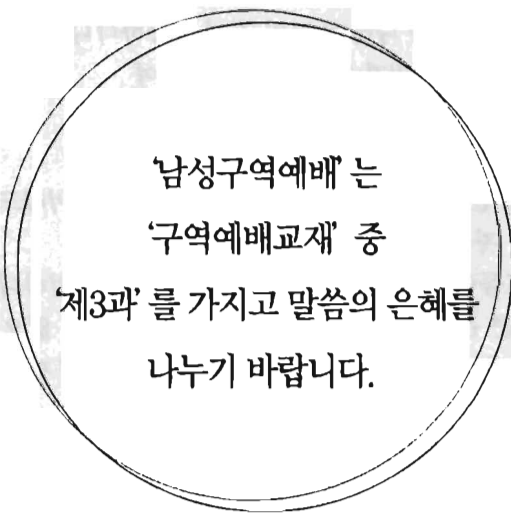
고전 1:17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바예수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내고, 서기오 바울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소서
3. 구역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³¹⁾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³²⁾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³³⁾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³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³⁵⁾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31~35)

초대 교회는 그 정체성을 구별지어주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모든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의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특징들은 변질되고 영적 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31절) 자신들의 의견을 버리며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힘과 생각, 의지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3~14)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31절) 인간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한 순간 행복해하다가도 다음 순간 슬픔과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령충만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즉 하나님께서 마음 속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31절) 성령의 목적은 신자들을 감화시키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학자가 아닌 어부였지만 그들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행 4:13)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행 8:4)

서로 통용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32,34~35절) 한국인들은 결속력이 무척 강한 편이지만 아직도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

서 나를 따르라”(마 19:21) 이 청년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실천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교회였습니다.(딤후 6:19)

은혜로 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33절) 은혜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초대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생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3~5)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충현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까? 우리는 후히 베풀니까? 진실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성령충만함 가운데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8년 5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